

앞에서 오픈 나왔는데 콜 아니면 3벳? - 한칸 법칙

히어로는 하이잭에서 30BB 스택으로 킹잭 오프수트(KJo)를 받았습니다. 앞선 로우잭이 2BB로 오픈하자 플랫콜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플랍은 448 레인보드. 킹잭 오프수트는 마지널한 핸드라서 쉽게 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로우잭 오픈 상대로 하이잭에서 어떤 핸드로 플랫콜(콜만)하고, 어떤 핸드로 3벳(재레이즈)하며, 어떤 핸드는 폴드하는지 레인지를 정확히 구축하고 계신가요?

퀸잭 오프수트(QJo)나 에이스텐 오프수트(ATo) 같은 핸드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퀸팔 수딧(Q8s)은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 로우잭 오픈에 하이잭에서 퀸잭 오프수트(QJo)는 100% 폴드가 정석입니다. 플랫콜을 했을 때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 에이스텐 오프수트(ATo)는 30BB 언저리에서는 아주 가끔 3벳 블러프나 콜이 들어가기기도 하지만, 폴드해도 무방합니다. 스택이 더 깊을수록(딥스택) 오프수트 브로드웨이 핸드는 더 적게 사용합니다.
- 퀸팔 수딧(Q8s)도 마찬가지로 폴드가 좋습니다.

반면, 포지션이 하이잭보다 더 뒤(버튼, 컷오프 등)로 갈수록 플랫콜 레인지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인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뒤에서 스쿼즈(3벳)할 플레이어 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딧 커넥터, 킹구 수딧(K9s), 퀸나인 수딧(Q9s) 등은 레이트 포지션에서 더 많이 방어하게 됩니다.

핸드별 플랫콜/폴드 기준

- 하이잭(로우잭 오픈 상대로):
 - QJo, KTo, QTo, JTo, A9o, T9o 등은 폴드
 - KQo, AJo, ATo 등은 상황에 따라 극히 일부만 3벳/플랫, 대부분 폴드
 - AJs, ATs, KJs, QJs, JTs, 99+, 88, 77, 66, 55, 44, 33, 22, 일부 수딧 커넥터만 플랫콜

왜 이렇게 타이트해야 하나?

- 로우잭 오픈 레인지는 8x 수딧, Jx 오프수트 이상으로, 오프닝 레인지 자체가 타이트합니다.
- 뒤 포지션일수록 플랫콜 레인지는 오픈 레인지보다 항상 타이트해야 합니다.
- 30BB 언저리, 즉 스택이 얇을수록 연습된 플레이(임플라이드 오즈를 기대할 수 있는 핸드)는 가치가 떨어지고, 탑 페어 가치가 더 커집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하는 실수

- QJo, QTo, KTo, JTo, T9o 같은 마지널 핸드로 너무 자주 콜함
- 낮은 스택에서 수딧 커넥터, 미들 파켓 등 임플라이드 오즈 핸드를 과용함
- 스택이 30BB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핸드들의 사용 빈도를 반드시 줄여야 함

플랫콜 레인지 쉽게 계산하는 법: '한 칸 법칙'

- 앞 포지션 오픈 레인지보다 한 칸 더 강한 핸드로만 플랫콜한다는 원리.
- 예) 로우잭 오픈이 8x 수딧, Jx 오프수트까지라면, 하이잭은 9x 수딧, Qx 오프수트 이상으로 플랫콜
- 컷오프는 9x 수딧, Qx 오프수트, 버튼은 10x 오프수트까지 올라감

정리

- 로우잭 오픈 상대로 하이잭 플랫콜 바텀: 9x 수딧, Qx 오프수트
- 하이잭 오픈 상대로 컷오프 플랫콜 바텀: 8x-9x 오프수트, Jx 오프수트
- 컷오프 오픈 상대로 버튼 플랫콜 바텀: 7x-10x 오프수트, (조금 더 넓은)

- 스몰블라인드(30BB 이하) 플랫콜: 버튼 오픈 기준 8x 수딧, 10x 오프수트와 비슷한 그림

기억할 것

- 스택이 30BB 이하로 떨어지면 플랫콜 레인지를 반드시 타이트하게 가져가라
- 임플라이드 오즈 핸드, 즉 미들파켓·낮은 수딧커넥터의 플랫콜 빈도를 줄여라
- 오프수트 브로드웨이(퀸잭, 킹텐, 퀸텐 등)는 거의 전부 폴드
- “한 칸 법칙”을 활용해서 내 포지션의 플랫콜, 3벳, 폴드 레인지를 구축하라
- 버튼에서 스몰블라인드 플랫콜 레인지는 컷오프 오픈에 버튼 플랫콜과 거의 흡사하다

마지막으로, 레인지는 GTO 위저드 같은 곳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콜 전략과 ‘한 칸 법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99로 올인 콜해야 하나요?

히어로는 14BB의 스택을 가지고 언더더건(UTG)에서 9파켓을 받았습니다. 2BB로 오픈하자 UTG+1에서 14BB 올인이 들어왔고, 히어로는 이 상황에서 콜을 해야 할지 폴드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세 테이블 정도 남아 있고 이미 ITM(인더머니)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9파켓으로 콜하시겠습니까? 폴드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상대가 어떤 레인지로 올인(셔브)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가 GTO(균형된) 레인지로 올인한다고 가정하면 9파켓은 콜해도 무방합니다.

UTG 오픈에 대해 UTG+1이 에이스텐 수딧 이상, 킹잭 수딧 이상, 퀸잭 수딧 이상, 파켓 8 이상, 그리고 에이스5 수딧 정도의 레인지로 올인한다고 가정할 때, UTG의 콜링 레인지 역시 그에 맞춰 결정됩니다.

이번 내용의 핵심은 **쇼트스택(약 15BB 이하) 상황에서 오픈 후 올인을 맞았을 때 어떤 핸드로 콜하고, 어떤 핸드로 폴드해야 하는지**, 즉 오픈 폴드 레인지와 오픈 콜 레인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15BB 정도의 스택에서는 UTG에서 항상 2BB 미니멈 오픈을 하며, 2.5BB 이상 크게 오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택이 얇을수록 오픈 사이즈는 작아지는 것이 정석입니다.

GTO 위저드 기준 14BB 스택의 UTG 레인지를 보면, 올인하는 핸드, 2BB로 오픈하는 핸드, 폴드하는 핸드로 나뉩니다. 80BB 딥스택 때보다 레인지가 더 타이트해지고, 키커가 낮은 수딧 에이스와 낮은 파켓들은 오픈 레인지에서 빠집니다.

14BB 상황에서 올인하는 핸드는 에이스킹 오프, 에이스퀸 오프, 에이스잭 오프, 킹텐 수딧, 킹잭 수딧, 퀸잭 수딧, 에이스텐 수딧, 킹퀸 수딧, 7파켓, 8파켓 등입니다.

이유는 이런 핸드들이 2BB로 오픈해서 플랍을 미스했을 때 플레이가 까다롭고, 폴드 이퀴티를 최대화하기 위해 올인하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UTG에서 대략 이런 레인지로 오픈 또는 올인을 하게 되며, 포지션이 뒤로 갈수록(UTG+1, 로우잭, 하이잭, 컷오프, 버튼) 오픈 레인지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버튼에서는 23%까지 올인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각 포지션별 14BB 셔브 레인지 예시(바텀 기준):

- **UTG:** AT 오프, KJ 오프, 6파켓, T9 수딧, Q9 수딧, K9 수딧, A9 수딧
- **UTG+1:** A9 오프, KJ 오프, QJ 오프, 5파켓, T9 수딧, Q9 수딧, K9 수딧, A9 수딧
- **로우잭:** A9 오프, KT 오프, QT 오프, 4파켓, T9 수딧, J9 수딧, K9 수딧, Q9 수딧, A4 수딧
- **하이잭:** A7 오프, KT 오프, QT 오프, JT 오프, 3파켓, T9 수딧, J9 수딧, Q8 수딧, A2 수딧
- **컷오프:** A4 오프, K9 오프, QT 오프, 2파켓, T8 수딧, J8 수딧, Q8 수딧, K7 수딧, A2 수딧
- **버튼:** 거의 모든 오프수트 AX, 모든 수딧 AX, 9x 오프수트, 2파켓, 7x 수딧, Q5 수딧, K3 수딧

스몰블라인드의 경우, 림프 전략과 셔브 전략에 따라 레인지가 달라지며, 슈퍼 프리미엄 핸드(에어라인, 킹스, 퀸스)는 다시 레이즈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레인지 차트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핸드별 특성과 왜 이런 레인지가 형성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택이 얇을수록 플랍 이후 플레이어빌리티보다는 폴드 이퀴티가 더 중요해지고, 레인지는 더 박스 형태로 변합니다.

오픈 후 셔브(올인)를 맞았을 때, 미리 어떤 핸드로 콜할지, 폴드할지 결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BB로 오픈하고 셔브를 맞았을 때 콜하는 핸드가 오픈 콜 레인지, 폴드하는 핸드가 오픈 폴드 레인지입니다.

상대가 GTO 셔브 레인지를 사용한다면 9파켓으로 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UTG+1이나 로우잭 등에서 플렛콜(콜만)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셔브 레인지가 실제보다 더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게임에서는 오픈 콜 레인지를 더 타이트하게, 오픈 폴드 레인지는 더 넓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UTG+1이 올인할 때, UTG는 텐스(10파켓) 이상, AK 오프수트 이상, AQ 수딧 이상 정도로 콜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또, 각 포지션별로 올인에 콜하는 레인지도 달라지며, 빅블라인드에서는 더 넓은 레인지(예: 3파켓, 4파켓, 오프수트 핸드 등)로 콜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오픈 셔브에 오버폴드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의 오픈 셔브 레인지를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BB 스택에서 상대가 빅블라인드에서 5파켓, 에이스텐 수딧 등을 폴드한다면, 우리는 더 약한 핸드까지 오픈 셔브 레인지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쇼트스택 프리플랍 게임트리는 각 포지션별, 그리고 상대의 실제 플레이에 맞춰 레인지와 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트를 전부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원리를 이해해서 인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14BB 상황에서 UTG 오픈 후 셔브를 맞았을 때, 콜할 레인지는 대략 텐스 이상, AK 오프, AQ 수딧 이상
- 실제 필드에서는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플랫콜 빈도, 올인 레인지 등)을 참고해 콜 레인지를 조정
- 스택이 짧을수록, 폴드 이퀴티와 즉각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레인지를 구성
- 프리플랍 오픈, 콜, 폴드 레인지의 원리를 이해해서 실전에서 유연하게 대응

이상으로 14BB 쇼트스택 상황의 오픈, 셔브, 콜, 폴드 레인지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소 - 앞에 림프 있을때

라이브 바인드 토너먼트나 오프라인 캐시게임을 하다 보면 림프를 자주 하는 플레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림퍼들의 성향도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좋은 핸드는 레이즈하고 나머지는 림프하는 반면, 에어라인(AA), 킹스(KK), 에이스킹(AK) 같은 몬스터 핸드까지도 림프한 뒤 뒤에서 누군가 레이즈하면 림프-레이즈 전략을 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림퍼들을 응징하고 싶어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애매한 사이즈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림프하냐고 따지거나 그만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림프할 것이고, 이런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우리의 수익원입니다. 포커에서 극강의 수익을 내기 어렵고, 결국은 상대 실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실수를 많이 하는 림퍼들은 기다렸다가 익스플로잇하면 됩니다.

앞에서 림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니,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림퍼가 있을 때 어떻게 플레이할지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에 림프가 있을 때 플레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림퍼를 상대로 스쿼즈(아이솔레이션 레이즈)를 하는 것
2. 우리도 같이 림프를 따라가는 것

1. 스쿼즈(아이솔레이션 레이즈)

마지널 핸드로는 아이소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스쿼즈 레인지가 상대 림핑 레인지보다 약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킹잭 오프수트, 에이스파이크 오프수트로 림프하는데 우리가 킹팔 수딧 같은 핸드로 스쿼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겠죠.

특히 우리가 상대해야 할 림퍼는 언더더건(UTG)이나 플러스원(UTG+1)에서 최초로 림프를 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림프 이후 뒤에 이어지는 림프들은 보통 더 약한 핸드일 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얼리 포지션 림퍼가 림프-레이즈까지 한다면 정말 강한 핸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끔 약한 핸드로 림프-레이즈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그땐 레인지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즈업으로 플랍을 맞는다면, 상대는 약한 레인지일 확률이 높으므로 우리 쪽이 레인지 어드밴티지를 가집니다. 따라서 무난하게 C-bet 위주로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반면, 림퍼들이 여럿 있어서 멀티웨이 팟이 된다면 좀 더 정직하게 플레이하는 게 좋고, 베팅 사이즈는 50% 이하로, 빈도도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명 중 한 명은 플랍에 강한 핸드를 맞췄을 확률이 높으니 탑페어만 맞췄다고 무리하지 말고, 침착하게 플레이하세요.

스쿼즈 사이즈는, 원래 오픈하려던 사이즈에 림퍼 한 명당 1BB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 예: 원래 2.3BB 오픈 → 림퍼 한 명 있으면 3.3~3.5BB, 두 명이면 4.5BB 정도
- 림퍼가 사이즈에 민감하지 않거나,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스쿼즈 레인지는 더 타이트하게, 아이소 사이즈는 더 크게(예: 4BB, 6BB 등)
- 스쿼즈할 때는 포기하기 아까운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핸드로 어중간한 스쿼즈가 제일 안 좋으니, 그럴 바엔 차라리 림프가 낫습니다.

2. 같이 림프(오버림프)

림프에는 오픈 림프와 오버림프(뒤에서 따라가는 림프)가 있습니다.

- 오픈 림프: 앞에서 모두 폴드, 우리가 처음 림프하는 것 → 절대 하면 안 됨
- 오버림프: 앞에서 이미 림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

오버림프 레인지는 예를 들어 4파켓, 5파켓, 에이스투 수딧~에이스포 수딧, 109 수딧, 98 수딧 같은 수딧 커넥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핸드들은 스쿼즈하기엔 애매하고, 플랍이 미스나면 부풀어진 팟에서 플레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버림프가 좋습니다.

또 5파켓 같은 핸드로 스쿼즈했다가 림퍼가 림프-레이즈를 하면 폴드해야 하는 역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핸드들로는 오히려 같이 림프 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버리프 핸드의 특징은 인플라이드 오즈가 크다는 것. 예를 들어 5파켓으로 플랍에서 세트가 맞으면, 상대가 잭X 같은 탑페어나 퀸텐처럼 드로우 있는 핸드를 들고 있으면 큰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림퍼들은 쿨링스테이션 경향이 강해서, 한 번 맞으면 잘 폴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핸드들은 스쿼즈보다 뒤에서 림프가 더 수익적입니다. 만약 200BB, 300BB처럼 딥스택이라면, 스쿼즈하고 릴레이즈가 들어와도 파켓이나 수딧 에이스로 콜할 수 있겠지만, MTT에선 대부분 20~50BB 사이로 플레이하므로 오버리프 전략이 더 맞습니다.

정리하면

- 림프-레이즈를 노리는 강한 림퍼는 주의
- 스쿼즈는 확실히 강한 핸드로, 사이즈는 크게
- 애매한 핸드는 오버리프
- 오픈 림프는 금지, 오버리프는 상황에 따라 활용
- 멀티웨이팟에서는 더 정직하고 신중하게

림퍼들은 우리의 수익원이 될 수 있으니, 원리를 알고 효과적으로 익스플로잇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트스택의 3단계

히어로는 세미파이널 테이블, 막 머니인을 한 상황에서 18BB 스택을 들고 하이잭 포지션에서 A6 오프수트를 받았 습니다. 앞 포지션들은 폴드했고, 히어로는 샤브(올인)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올인을 선택합니다. 무드는 폴드하 고, 빅블라인드는 A10 오프수트로 콜을 하여 히어로는 쇼다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토너먼트를 하다 보면 누구나 쇼트스택 상황에서 올인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오는데, 이런 사실상 매일 겪는 일입니 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핸드로 푸쉬(샤브)할지, 또 어떤 스택에서 2BB 오픈이 더 나은지, 샤브 레인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포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중해서, "A6로 올인했더니 상대가 A10이었네, 괜히 올인했다"라며 경험을 다음 플레이에 반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 샤브가 수익적인가 아닌가'뿐입니다.

핸드별 샤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의 콜링 레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15BB에서 A10 오프수트 로만 콜을 한다면, A6 같은 낮은 에이스로 샤브하는 게 충분히 수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키퍼 에이스로 샤브해서, 우리보다 높은 키퍼 에이스들이 폴드하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샤브 레인지는 상대의 콜링 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원리가 모여 푸쉬/폴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표를 외 우는 것보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원리를 알면 극한 압박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푸 쉬할 수 있습니다.

쇼트스택 샤브 레인지는 크게 3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0~15BB 구간: 폴드 에쿼티가 있고, 미들파켓(58파켓)이나 낮은 키퍼의 에이스 같은 핸드들은 샤브가 더 수 익적입니다. 오픈 레이즈보다 샤브의 EV가 더 높게 나옵니다.
- 5~10BB 구간: 폴드 에쿼티가 줄어듭니다. 24파켓이나 낮은 에이스 오프수트, 약한 핸드들은 콜이 더 많이 들 어오기에 셔브 빈도가 줄고, 브로드웨이 수딧(퀸잭, 킹퀸, 잭텐 등) 같은 핸드들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 0~5BB 구간(절망 구간): 폴드 에쿼티가 거의 없어 어떤 핸드로 올인을 해도 배리언스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 다.

포지션에 따라서도 샤브 레인지는 달라집니다. 언더더건에서는 낮은 파켓, 낮은 에이스 같은 핸드들을 폴드하는 경 우가 많지만, 컷오프나 버튼에서는 더 넓은 레인지로 올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BB 스택에서 A5 오프수트로 샤브할 때, 상대는 A10 오프수트까지도 폴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 적인 푸쉬가 됩니다. 반대로 스택이 6BB로 줄어들면 상대는 A8, A9, A10 등으로도 콜을 하기에 낮은 에이스 오프 수트로 올인하는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딧 브로드웨이 같은 라이브 핸드의 가치가 올라갑 니다.

상대의 콜링 레인지를 넓게 유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킹퀸, 퀸잭, 잭텐 수딧 등 브로드웨이 박스 핸드들의 에쿼티 가 올라갑니다. 즉, 12~15BB에서는 이런 핸드들은 폴드해도 되지만, 6~7BB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푸쉬하는 게 수익적이 됩니다.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대표적 예시는,

- 미들파켓(8, 9파켓 등)으로 2BB 오픈만 하고, 푸쉬하지 않는 경우
- 오픈해야 하는 프리미엄 핸드(에어라인, 킹스 등)로 오히려 올인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핸드들은 스택이 10BB 근처일 때 항상 올인하는 것이 훨씬 수익적입니다. 반대로 에어라인, 킹스 등 프리 미엄 핸드는 2BB 오픈이 더 높은 EV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빅블라인드는 2BB 오픈에 마지널 핸드로도 콜을 자주 하니, 컷오프/버튼에서 2BB 오픈보다 올인을 자주 섞는 게 좋고, 일반적인 풀에서는 버블 압박이 매우 크므로, 레이트 포지션에서 다양한 수딧 커넥터, 브로드웨이 등 으로 푸쉬하는 것이 수익적입니다.

쇼트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폴드 에쿼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 올인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 고 푸쉬/폴드 차트의 원리를 이해해서 실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림프 전략은 15BB 이하에서 GTO 차트상 등장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 오픈/올인/폴드 3가지 옵션에 집중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차트를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이 고, 실전에서 자신 있게 쇼트스택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배트와 플랫 레인지 구성하기

언더더건에서 오픈레이즈가 나오고, 여러분이 컷오프에서 99(나인 파켓)를 들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3배트를 할지, 콜을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어떤 핸드로 3배트(리레이즈)를 해야 하고, 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3배트 혹은 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디서 오픈이 나왔는가? 얼리 포지션(언더더건, 언더더건+1)에서 오픈이 나왔는지, 아니면 하이잭, 컷오프 같은 레이트 포지션에서 오픈이 나왔는지에 따라 3배트와 콜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둘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핸드가 3배트에 적합한지, 콜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스택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택 사이즈에 따라 3배트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배트를 하는 이유는 밸류를 받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텐 파켓으로 3배트를 하면, 상대의 레인지에 있는 KQ, QJs, QTs 같은 핸드가 폴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약 50%의 에퀴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에퀴티 디나이얼). 즉, 3배트를 할 땐 상대를 폴드시켜 에퀴티를 빼앗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콜을 선택하면, 플랍-턴-리버까지 인포지션에서 플레이하며 에퀴티 실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플랫(콜)하는 핸드들은 주로 플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핸드, 예를 들어 KQs, QJs, QTs, AJs 등입니다. 이 핸드들은 3배트 콜을 당했을 때는 플레이가 어려울 수 있지만, 플랫으로 들어가면 플랍을 보고 플레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3배트를 하면 팻대비스택비율(SPR)이 낮아지고, 콜을 하면 SPR이 높아집니다. SPR이 낮으면 플랍, 턴에서 올인이 쉽게 나올 수 있고, SPR이 높으면 포스트플랍에서 좀 더 여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리버까지 보고 싶은 핸드, 예를 들어 미들 파켓, 수딧 에이스, 수딧 브로드웨이 핸드들은 콜로 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배트의 단점은, 상대가 콜을 할 경우 오픈 레인지보다 훨씬 강한 레인지와 맞붙게 되어, 미들 파켓이나 수딧 브로드웨이로 플레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콜의 단점은,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추가로 콜하면서 멀티웨이 팻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3배트하기 좋은 핸드들은 프리미엄 핸드(AA, KK, QQ, AKs, AKo 등)와 포스트플랍 플레이가 다소 까다로운 움썹 브로드웨이(KQo 등)입니다. 반면, 미들 파켓(99, 88, 77 등), 수딧 브로드웨이, 수딧 커넥터 등은 플랫하기 좋은 핸드입니다. 하이잭, 컷오프, 버튼에 갈수록 플랫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3배트 빈도도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포지션별로 3배트와 콜 레인지도 다릅니다. 언더더건 오픈에 UTG+1에서 대응할 때는 3배트 약 5.5%, 콜 5.9%로 둘 다 매우 타이트합니다. 주로 AA, KK, QQ, AKs, AKo, 일부 수딧 브로드웨이가 3배트, 99 이하 파켓과 나머지 수딧 브로드웨이는 콜 쪽에 속합니다. 포지션이 뒤로 갈수록 플랫 콜 빈도와 3배트 빈도가 모두 올라가고, 버튼에서는 플랫 콜이 3배트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의 대응도 다릅니다. 스몰블라인드는 매우 타이트한 레인지로 대응해야 하고, 빅블라인드는 훨씬 더 넓은 레인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는 마지막 액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핸드로 콜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픈 포지션이 뒤로 갈수록(예: 하이잭, 컷오프, 버튼) 3배트 비중이 더 높아지고,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특히 버튼 오픈에는 스몰블라인드에서 3배트 비율이 16%가 넘을 정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낮아질수록(예: 40BB, 30BB 이하) 3배트 대신 3배트 올인(3bet shove) 전략이 등장하며, 작은 파켓이나 수딧 브로드웨이 핸드로도 3배트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3배트 사이즈는 유효 스택과 포지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포지션에서는 보통 3X, 아웃오브포지션에서는 4X로 잡으며, 스택이 깊으면(딥스택) 사이즈가 커지고, 스택이 얇아질수록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20BB 이하에서는 3배트는 거의 올인(3bet shove) 사이즈로 대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TT에서는 많은 플레이어가 3배트 팻을 어려워하고, OOP(포지션 밖)에서 플랫을 과도하게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 상대를 더 효과적으로 익스플로잇할 수 있습니다. 스몰/빅블라인드에서 넓은 3배트 레인지를 가져가면, 상대가 예상보다 더 자주 폴드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배트와 콜의 선택은 핸드, 포지션, 스택, 상대 성향까지 모두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포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 하나입니다.

AKo 항상 4벳 해야 하나요?

히어로는 하이잭에서 100BB 스택으로 에이스킹 오프수트를 받고 2BB로 오픈레이즈합니다. 기본 좋게 플랍을 볼 생각이었지만, 빅블라인드에서 4BB에 가까운 강한 3벳이 나옵니다. 빅블라인드의 플레이어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매니악스러운 스타일이며, 약간 술에 취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히어로는 상대가 약한 핸드로도 3벳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BB로 4벳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라이브한 핸드로 콜을 하고, 플랍에서 에이스나 킹이 뜨면 상대 스택을 전부 가져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가 50BB, 즉 스택의 절반을 집어넣는 5벳을 합니다. 블라인드는 500/1000으로, 매우 얕한 100BB 상황에서 프리플랍에 절반 가까운 스택을 넣은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랍 전에 이미 올인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5벳을 할 수 있는 핸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히어로는 자신이 이기고 있는 핸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킹퀸, 에이스퀸, 에이스잭 같은 핸드로 과연 5벳을 할까? 잭스나 퀸즈를 들고 있더라도 5벳은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상대 핸드는 에이스, 킹스밖에 없다고 생각해 폴드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프리플랍 액션 중 히어로가 가장 크게 실수한 액션은 무엇일까요?

1번, 에이스킹으로 2BB 오픈한 것

2번, 상대 3벳에 4벳을 한 것

3번, 4벳 사이즈

4번, 5벳에 폴드한 것

가장 EV 손실이 큰 액션을 고르라면, 바로 4번, 5벳에 폴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GTO 차트를 보면, 100BB 딥스택에서 하이잭의 에이스킹은 당연히 오픈레이즈하고, 빅블라인드는 폴라라이즈된 레인지로 3벳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오프라인 풀에서는 사람들의 3벳 레인지가 매우 좁고, 강한 핸드 위주로 3벳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이잭의 에이스킹 오프수트는 3벳에 플랫콜, 작은 사이즈 4벳, 또는 100BB 올인까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GTO 상 EV 값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해도 실수는 아닙니다. 다만, 4벳 후 상대의 5벳에 폴드하는 것이 가장 큰 EV 손실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4벳한 칩을 모두 포기하고 폴드하는 순간, EV가 0이 되어버리고, 올인 혹은 콜을 했을 때의 EV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콜의 EV는 6.14, 폴드의 EV는 0.02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BB100으로 계산하면 -612BB짜리 큰 실수입니다.

상대가 5벳을 할 수 있는 핸드는 거의 에이스, 킹스밖에 없다고 해도, 에이스킹 오프수트로 4벳을 했으면 5벳에 반드시 콜해야 한다는 겁니다. GTO에서는 5벳 블러프가 일정 비율로 들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안 하더라도 폴드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액션을 반복하면 엄청난 손실이 누적됩니다.

실전에서는 빅블라인드에서 블러프 3벳, 블러프 5벳이 적기 때문에, 상대가 3벳을 할 때 거의 강한 핸드, 즉 파켓 텐, 잭스, 퀸즈, 킹스, 에이스가 주가 되고, 플랫콜이나 4벳 모두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벳 후 5벳에 폴드하는 라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스킹 오프수트의 프리플랍 전략을 정리하면,

- 상대가 OOP에서 3벳할 때 플랫콜이나 4벳 모두 EV상 큰 차이는 없다.
- 하지만 4벳을 선택했다면, 5벳에 절대 폴드하지 말고 반드시 콜해야 한다.
- 상대가 5벳 블러프가 없을지라도, 폴드 시의 EV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
- 경험이 쌓이고 믹스 전략이 익숙해지면, 상황에 따라 플랫/4벳을 섞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랫콜을 주 전략으로 추천한다.

풀 레인지 전략(항상 플랫콜)을 기본값으로 삼고, 경험이 늘어나면 믹스 전략(상황별로 플랫/4벳)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벳 팟에서 IP 플레이가 더 쉽고, 게임 트리도 단순해지므로, 하이잭 오픈 vs 빅블라인드 3벳 상황에서는 에이스킹 오프수트로 플랫콜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적인 선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이잭 오픈, 빅블라인드 3벳, 그에 대한 플랫콜/4벳/폴드 선택, 5벳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스킹 오프수트로 4벳 후 5벳을 맞았을 때는 절대 폴드하지 말아야 하며, 전략을 단순화하고 싶다면 IP에서 플랫콜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99 3бет 해도 되나요?

로젝과 하이젝 구도에서 8, 9, 10 같은 미들 파켓이나 수딧 커넥터 핸드들을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은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플랫콜과 3бет,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떤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포스트폴랍 플레이도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콜을 더 자주 선택하는 편이고, 두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8-8, 9-9, 10-10 같은 핸드들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3бет의 장점은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팟에 참여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бет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GTO 관점에서는 솔버 환경에서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가 플랫콜에 잘 따라오지 않으니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플랫콜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계속 콜을 따라와서 멀티웨이로 되기 쉽기 때문에, 프로텍션이 필요한 파켓들, 또는 킹잭수딧, 에이스잭수딧, 에이스퀸수딧 같은 핸드로 3бет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플랫콜의 장점은 팟 사이즈 조절이 쉬워지고, 특히 인포지션에서 플레이할 때 높은 SPR에서 센 마이닝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3бет의 경우 팟이 커지고 4벳이 들어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4벳을 거의 블러프 없이, 에이스킹조차도 4벳하지 않는 타이트한 스타일이라면 9-9 같은 핸드도 폴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3бет의 또 다른 장점은 주도권(이니시에이티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GTO 강의나 코칭에서는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3бет으로 포지션과 어그레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3бет을 하면 상대의 브로드웨이 핸드, 마지노한 핸드들, 그리고 많은 플립 핸드들을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필드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OOP에서 3бет에 옴숏 박스 콤보들이 많다면 7-7, 8-8, 9-9, 10-10으로 3бет하는 메리트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폴드 이쿼티가 EV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상대가 폴드할 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스킹 옴숏 같은 핸드로 4벳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립에 가까운 핸드들을 폴드시켜 폴드 이쿼티에서 EV를 만들기 때문이죠. OP(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3бет 팟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어려워하고, 오버폴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P+에서 3бет 팟을 만들면 수익적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보드가 안 좋게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퀸-텐-텐 같은 보드에서 배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보드에서 3бет 레인지를 어떻게 나누고, 에이스킹이나 에이스잭 같은 핸드들 어떻게 배팅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밸류와 블러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내 밸류 핸드에 어떤 핸드들이 콜할지, 내 블러프가 어떤 핸드들을 폴드시킬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킹으로 배팅했을 때 밸류가 되려면 내 핸드보다 약한 핸드가 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킹하이, 에이스하이, 플러쉬 드로우 등이 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턴이나 리버로 가면서 내 쇼다운 밸류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블러프 라인으로 전환할지, 체크하고 포기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리버에서 상대의 레인지가 에이스하이, 킹하이 등으로 좁혀진다면, 블러프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합니다. 작은 사이즈로 블러프를 할지, 큰 사이즈로 폴라라이즈된 벳을 할지, 상대의 경향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레귤러 상대로는 작은 사이즈 블러프의 효용이 떨어지고, 큰 사이즈를 쓸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레크레이셔널 상대로는 작은 사이즈로도 폴드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블러프를 할 때는 타깃 레인지(폴드시킬 수 있는 핸드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 블러프 핸드가 상대의 콜 레인지를 얼마나 잘 블락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에이스잭 클로버를 들고 있다면, 상대가 블러프 콤보로 쓸 수 있는 핸드들을 블락하고 있기에 폴드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3бет 팟에서 플랍-턴-리버별로 다양한 액션과 라인이 존재하고, 실전에서 이를 많이 경험해보고 복습해야 진짜로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밸류벳은 감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블러프는 이성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 테이블에 앉아서도 자동 반사적으로 최적의 라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패턴 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라인에 미련을 갖지 않고, 검증된 플레이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다음 핸드로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경험을 쌓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더 쉽게, 더 자신감 있게 블러프와 밸류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KQo 3벳 해도 되나요?

히어로는 컷오프 포지션에서 킹퀸 수딧을 받았고, 스택은 23BB입니다. 로우잭에서 2BB로 오픈레이즈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플랫콜, 3벳, 폴드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플랫콜을 많이 하거나, 가끔은 3벳 블러프로 돌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플랫콜과 3벳 모두 가능한 옵션인데, 이번엔 약 5.5BB, 즉 3 배수에 약간 못 미치는 크기로 3벳을 했습니다.

이렇게 3벳을 하면 스몰블라인드나 빅블라인드가 팟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로우잭의 약한 핸드(A9s, A10s 등)를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우잭은 콜을 했고, 플랍은 히어로의 핸드와 관련 없는 9-3-2 레인보우 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플랍에서 하이파켓 주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레인지벳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프리플랍에서 킹퀸 수딧으로 3벳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벳 블러프를 할 때는 유효 스택을 잘 봐야 합니다. 상대가 콜을 했을 때, 플랍이나 턴에 c벳이나 추가 배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스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만 3벳 블러프가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23BB 스택에서 5.5BB 3벳을 하고 나면 SPR이 1을 약간 넘는 상황이 되어 플레이가 다소 어색해 집니다. 그래서 킹퀸 수딧을 3벳 블러프로 사용할 땐, 플랍 이후에 여유롭게 플레이할 공간이 남아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프리플랍에서 3벳 레인지를 정할 때는 스택 사이즈와 포지션, 그리고 플랍 이후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합니다. 킹퀸 수딧은 스택이 얇아질수록, 예를 들어 100BB보다는 20BB 스택일 때 훨씬 더 강력한 핸드로 평가됩니다. 스택이 얇아질수록 킹하이 플랍이나 퀸하이 플랍에서 쉽게 올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킹퀸 수딧의 밸류가 100BB 덥일 때보다 더 높아지고, 플레이 빈도도 높아집니다.

3벳 사이즈는 5BB, 5.5BB 등 크게 차이 나지 않고, 30BB 이하의 스택에서는 3배수보다 살짝 작게 써도 됩니다. EP 대 EP 구도에서는 A6A9 수딧 같은 핸드도 자주 폴드하지만, 현재 구도에서는 그런 핸드들도 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킹잭킹9 수딧, 다양한 파켓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플랍 9-3-2에서 33% 사이즈로 레인지벳을 하는 이유는, 이 보드에서 레인지 어드밴티지는 여전히 3벳한 쪽에 있고, 벳 레인지를 밸런싱해서 약한 핸드로도 일정 빈도로 배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팅 사이즈를 쓰는 이유는 큰 사이즈를 쓸 경우 셀프 아이솔레이션이 될 수 있고, 블러프일 때 트래쉬 핸드들을 폴드시킬 충분한 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딧 핸드들은 백도어나 플러쉬 드로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콜할 수 있지만, 옴슈들은 거의 폴드하게 됩니다. AQo, AKo 같은 오프슈트 핸드들은 4벳으로 빠질 수 있고, 대부분의 투오버 카드들도 백도어 드로우가 없으면 폴드 비중이 높아집니다.

상대가 콜을 많이 할 만한 사이즈는 오히려 2033% 수준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3벳팟에서 레인지벳 기본 사이즈는 2033%가 주로 사용되고, 싱글레이즈팟에서는 33~50% 사이즈가 레인지벳 영역입니다. 이미 팟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3분의 1 팟만 해도 실제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특정 보드에서 텐스, 잭스 등 하이카드 바로 위 파켓들은 프로텍션 목적에서 더 자주, 더 큰 사이즈로 배팅하게 되며, 오버페어는 작은 사이즈 또는 때때로 체크백도 섞을 수 있습니다. 9하이, 10하이 플랍에서는 투오버, 오버페어 모두 크게 벳해서 팟을 빠르게 키워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팟 기하학(Pot Geometry)을 이용해서 원하는 팟 사이즈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SPR(스택-팟 비율)에 따라 플랍, 턴, 리버를 거치면서 어떤 사이즈로 배팅해야 올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필드에서는 GTO(게임이론 최적)와 달리 작은 사이즈에 더 많은 핸드로 콜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폴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향을 잘 익스플로잇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레인지 벳과 체크, 각각의 장단점과 필드 경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으면 다양한 브로드웨이가 없는 드라이 플랍에서 더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ICM 이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

히어로는 파이널 테이블 8명 남은 상황에서 버튼에서 20bb 스택으로 8파켓을 받았습니다. 칩 분포는 컷오프와 빅 블라인드에 쇼스택이 있고, 로우잭과 하이잭은 비교적 많은 칩을 갖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10만/20만, 하이잭이 2.5bb(50만)로 오픈합니다. 이때 버튼에서 8파켓으로 콜, 폴드, 레이즈 중 어떤 액션이 가장 수익적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ICM(Independent Chip Model) 기반의 파이널 테이블 전략을 다룹니다. 지금까지는 칩 EV(Chip EV)만 고려해 전략을 설명했지만, 실제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ICM의 영향이 매우 커집니다. 칩 EV만으로 계산하면 8파켓은 올인이 가장 수익적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ICM EV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ICMIZER로 똑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컷오프와 스몰블라인드에 쇼스택이 존재할 때 버튼에서 8파켓은 0.01% 폴드가 더 수익적이라고 나옵니다. 즉, 칩 EV로는 올인이 약간 플러스지만, ICM EV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마지널'한 선택이 됩니다. 이는 칩을 잃었을 때의 손실이 얻는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ICM의 핵심은 토너먼트에서 칩의 가치가 단순히 칩 개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택이 두 배라고 상금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더블업의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탈락했을 때의 손실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쇼스택은 더 타이트하게 플레이해야 하고, 미들스택은 다른 쇼스택이 탈락하길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ICM이 적용되는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올인 쇼다운에서 리스크해야 하는 EV가 항상 더 크게 작용하므로, 칩 EV상 근소하게 플러스인 핸드도 ICM EV상으로는 폴드가 수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평소라면 올인할 수 있는 핸드도, 쇼스택이 남아 있고 페이점프가 중요한 상황에서 폴드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 토너먼트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칩 EV보다 ICM EV가 더 중요합니다.
- 쇼스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마지널한 핸드(예: 8파켓, 약한 브로드웨이 등)로 스택오프/올인하지 않는 것이 더 수익적입니다.
- ICM은 토너먼트 칩을 실제 상금 가치로 환산해주는 시스템이며, 그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칩을 잃었을 때의 손실 > 같은 양의 칩을 얻었을 때의 가치'임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 버블/파이널 테이블에서는 미들스택, 빅스택, 쇼스택 각각 전략이 달라지며, 마지널 스폿은 최대한 피하고 살아 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파이널 테이블 전략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시게임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스택오프(올인)에 콜해야 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2. 마지널 스폿은 피해야 하며, 칩 EV상 근소하게 플러스라도 ICM EV로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버블 구간, 페이점프가 큰 구간에서는 더욱 타이트하게.
4. 쇼스택은 더 타이트하게, 미들스택은 기다림 전략, 빅스택은 쇼스택 압박(스틸) 전략이 유리합니다.
5.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팟을 크게 키워서 밸류를 극대화하기보다, 빠르게 에퀴티(폴드 에퀴티 포함)를 실현하고 팟을 가져오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6. 3벳 레인지 역시 마지널한 수딧 커넥터 대신 블락커 핸드(AX, KX 등)로 구성하며, 플랍 C벳 전략도 작은 사이즈로 자주, 빠르게 팟을 가져오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ICM은 모든 상황에 완벽한 정답을 주지는 않지만, 기본 원리와 리스크 프리미엄 개념만 잘 이해해도 파이널 테이블에서 손실을 줄이고 상금 획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이널 테이블의 모든 구간에서 ICM은 우리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어들의 타이트/루즈 성향을 파악해 추가로 익스플로잇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Ts 오픈했는데 3벳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히어로는 언더더건(UTG)에서 퀸텐 하트 수딧(Q♥10♥)을 받고, 블라인드 2,000/1,000, 스택 약 50bb 상황에서 2.2bb로 오픈 레이즈를 합니다. 바로 다음 자리인 UTG+1에서 3배(3x)로 수리벳이 나왔을 때, 이 핸드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즉 UTG 오픈 후 UTG+1의 3벳에 대한 OOP(Out of Position) 대응은 많은 플레이어가 어려워하는 구도입니다. 인포지션에서 3벳한 상대가 플랍 이후에도 계속 배팅을 이어가기 쉽고, 우리가 밸류 핸드를 히트해도 밸류를 충분히 얻기 힘든 구조입니다. GTO 차트상 이런 상황에서 퀸텐 수딧은 거의 항상 폴드로 나옵니다. 콜과 폴드의 EV 차이가 별로 없어서, 'indifferent'(둘 다 수익적으로 큰 차이 없음) 상황입니다. 즉, 콜하든 폴드하든 장기적으로 비슷하다는 뜻이죠.

퀸텐 수딧뿐만 아니라 퀸잭 수딧, 심지어 에이스 퀸 옴슈트 같은 핸드도 UTG+1의 3벳 상대로는 GTO 기준으로 폴드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 버튼이 3벳했을 때는 버튼의 3벳 레인지가 훨씬 넓기 때문에, 같은 퀸텐 수딧이나 퀸잭 수딧은 거의 항상 콜하게 됩니다. 즉, 3벳이 나온 포지션이 앞자리일수록 레인지가 강하므로 우리도 방어를 타이트하게, 버튼 등 후방일수록 더 넓게 디펜스할 수 있습니다.

파켓페어의 경우, UTG 대 UTG+1 3벳 구도에서는 5~7파켓 같은 마지널 미들파켓을 딥스택(100bb)에서 폴드할 때도 있지만, 50bb 이하로 스택이 줄면 거의 모든 파켓을 플랫 콜합니다. 40bb 이하에서는 폴드 빈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파켓은 오픈-콜로 디펜스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만, 실제 필드에서 3벳 레인지가 매우 강하게만 구성돼 있다면 이런 마지널 파켓도 오버폴드할 수 있습니다.

수딧 커넥터(예: 98s, 87s, 76s, 65s 등)는 GTO상 거의 모든 스택 상황에서 3벳에 플랫 콜로 디펜스합니다. 실전 필드에서는 마지널 커넥터로 오픈했다가 3벳을 맞으면 많이 폴드하는 경향이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거의 콜이 기본입니다. 다만, 텐이 들어간 수딧 커넥터(탱구 수딧, 10♠9♠ 등)는 상대 3벳 레인지에 10x 수딧이 많아 도미네이트 당할 위험 때문에 GTO에서는 폴드 빈도가 높지만, 실제 필드에서 그런 3벳이 별로 없다면 히어콜해도 무방합니다.

수딧 에이스(AXs)의 경우,

- A3s, A4s, A5s는 보통 콜
- A6s~A9s는 3벳 콜보단 폴드 빈도가 높음
- A10s 이상부터는 다시 플랫 콜

스택이 얇아질수록 A6s~A9s도 일부 콜 빈도가 생기지만, 전반적으로 UTG+1 3벳은 너무 강력해서 이런 핸드로는 플레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이스 퀸 옴슈트(AQo)은 60~100bb 상황에서는 EP 3벳에 거의 폴드, 50bb 이하로 스택이 줄면 플랫 콜이나 4벳을 일부 추가하며 퀸-아이, 에이스-아이 플랍에서 승부 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UTG+1 3벳 레인지가 GTO보다 훨씬 강하게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AQo 같은 핸드도 좀 더 오버폴드(더 많이 폴드)해도 무방합니다.

정리하자면, UTG 오픈 후 UTG+1 3벳에 대한 OOP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퀸텐 수딧, 퀸잭 수딧, 퀸나인 수딧 등은 거의 폴드.
- AQo는 딥스택에서 폴드, 쇼트스택(50bb↓)에서는 일부 콜/4벳 시도 가능.
- 파켓페어는 100bb에서 5~7파켓 일부 폴드, 50bb↓에선 거의 전부 콜.
- *수딧 커넥터(98s, 87s, 76s, 65s)**는 거의 항상 콜, 단 10x수딧은 실전에서 상대 3벳 레인지 보고 유동적으로 결정.
- *수딧 에이스(AXs)**는 A3s~A5s, A10s 이상만 콜, A6s~A9s는 거의 폴드.

실제 필드에서는 3벳 레인지가 더 타이트하고 블러프가 적으므로, GTO보다 더 오버폴드하는 전략을 써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EP(얼리 포지션) 대 EP 3벳 상황에서는 OOP에서 마지널 수딧 브로드웨이나 일부 AXs, 미들파켓까지도 많이 폴드하는 것이 수익적이며, 수딧 커넥터는 차트상 디펜스가 기본이지만, 실전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버튼 오픈 상대로 BB에서 3벳 하기

히어로는 빅블라인드에서 탱구 스페이드 수딧(10♠9♠)을 받았고, 블라인드는 12,000, 버튼에서 4,500으로 오픈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빅블라인드의 최적 전략은 콜, 폴드, 레이즈 중 어떤 것일까요? 탱구 수딧은 플랍을 보기에 훌륭한 핸드라 콜도 괜찮아 보이지만, GTO(이자드)는 거의 100% 빈도로 3벳을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튼 포지션은 오픈 레인지가 매우 넓어(MTT 기준 50% 이상), 3벳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빅블라인드가 3벳을 하면, 버튼의 넓은 오픈 레인지에 포함된 A-x 수딧, K-x, Q-x, J-x, 낮은 파켓 등은 3벳을 맞았을 때 콜하기도 어렵고, 콜을 한다 해도 플랍 이후에 디펜스가 힘듭니다. 빅블라인드가 플랍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면 버튼은 오버폴드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 점을 이용해 수딧 커넥터(탱구 수딧, 98 수딧 등)로도 3벳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수딧 커넥터가 3벳 레인지에 들어가는 이유는,

- 3벳으로 더 강한 핸드들(A-x, K-x, Q-x, J-x 등)을 폴드시켜 equity를 확보하고,
- 플랍 이후 플레이어빌리티가 좋아 블러프나 밸류 모두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3~5 파켓 같은 핸드는 포스트플랍 플레이가 어려워 콜로 디펜스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원리로, 버튼 오픈에 대한 빅블라인드의 3벳 레인지는 프리미엄 핸드와 수딧 커넥터, 그리고 일부 수딧 개퍼(98s, 87s, 76s, 65s, 54s 등)까지 섞는 폴라라이즈드 구조가 됩니다. 이는 버튼이 오픈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기에 빅블라인드의 3벳 폴라라이즈가 특히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스택 사이즈에 따라 빅블라인드의 3벳 레인지도 달라집니다.

- 100BB~80BB 답: 프리미엄+수딧 커넥터/개퍼가 주 3벳 레인지. 일부 A5s, A4s 등도 블러프 3벳에 섞임.
- 50BB 이하: 3벳 레이즈뿐 아니라 3벳 올인(쇼브) 레인지가 등장. 예를 들어 8파켓 이하, AQs, AJs 등으로 3벳 올인이 들어갈 수 있음.
- 40BB 이하: 2~8파켓, AQo, AJs, ATs 등 쇼브 레인지가 넓어짐.
- 30BB~20BB: 쇼브 레인지가 더 넓어지고, JJ, A9s 등도 들어감. 20BB에선 프리미엄 외엔 거의 모두 쇼브로 대응.

핸드 별 구체적 레인지보다 중요한 건, 스택이 얇아질수록 포스트플랍 플레이어빌리티가 떨어지는 핸드들을 프리플랍에서 과감하게 쇼브로 처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플랍 이후에도 3벳 팟에서 탱구 수딧은 플레이어빌리티가 매우 높아, 예를 들어 Q-J-5 같은 플랍에서 50% c벳을 섞으면서, 다양한 마지널 파켓/오버카드 핸드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했다라도 백도어 플러시드로 우, 스트레이트드로우 등으로 계속 배럴을 이어가기도 좋죠.

정리하면,

- 버튼 오픈에 빅블라인드는 프리미엄+수딧 커넥터/개퍼로 폴라라이즈 3벳
- 스택이 얇아질수록 3벳 레이즈 → 3벳 쇼브 전략으로 전환
- 수딧 커넥터/개퍼의 포스트플랍 플레이어빌리티가 3벳 레인지 편입의 핵심 이유
- 3벳 팟에서는 공격적인 c벳, 레인지 타겟팅 플레이가 매우 효과적

이런 원리만 이해해도, 실전에서 상황에 맞는 빅블라인드 3벳/콜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vs 블라인드, SB 시점

블라인드 50만 상황, 히어로는 스몰블라인드에서 A4 오프슈트를 받았습니다. 스택은 60BB이고, 이럴 때 0.5BB로 림프할지, 아니면 레이즈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2BB, 2.5BB로 레이즈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만, 이는 엄연한 실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액션은 0.5BB로 림프하는 것이며, 실제 GTO 차트에서도 A4 오프슈트는 거의 항상 림프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사실 대부분의 핸드가 스몰블라인드에서는 림프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스몰블라인드에서 림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빅블라인드와 OOP(포지션이 불리한 상황)에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 자주 레이즈하면 빅블라인드는 넓은 핸드로 콜할 수 있고, 인포지션에서 쉽게 아웃플레이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렴하게 자주 플랍을 보며 이퀄리티를 실현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빅블라인드가 림프에 대해 3.5BB로 레이즈(아이솔레이즈) 한다면, A4 오프슈트 같은 핸드는 림프-콜 라인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스몰블라인드에서 직접 레이즈했다가 3벳을 맞으면 콜하기 어려워지므로, 림프-콜로 플랍을 더 자주 보고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스몰블라인드 림프 전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림프 후 빅블라인드의 레이즈에 대해 콜(림프-콜)
- 혹은 폴드(림프-폴드)
- 그리고 강한 핸드는 림프-리레이즈까지도 섞음

이렇게 하면 빅블라인드에게 익스플로잇당하기 어려운, 균형 잡힌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택이 깊을수록(예: 100BB) 스몰블라인드의 레이즈 빈도는 10% 미만이고, 거의 모든 핸드가 림프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스택이 줄어들수록 오픈 레이즈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사이즈도 3.5BB→3BB→2.5BB 등으로 조금씩 작아집니다. 30BB 이하에서는 오픈젼(올인) 레인지가 일부 등장하며, 8BB 이하에서는 거의 올인 혹은 폴드 전략만 남습니다.

레이즈 사이즈의 원칙은 OOP(스몰블라인드)에서는 딥스택일수록 더 큰 사이즈(4BB), 스택이 줄수록 더 작은 사이즈(2~3BB)로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지션 불리함을 보완하고, 낮은 빈도의 오픈을 커버하기 위한 GTO 식 접근입니다.

실전에서는 빅블라인드가 스몰블라인드 오픈에 오버폴드를 한다면, 오픈 빈도를 늘리고 사이즈는 3.5BB 또는 3BB로 조절해도 됩니다. 반대로 빅블라인드가 너무 넓게 콜한다면 림프 전략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필드에서 빅블라인드는 약한 수딧 핸드나 오프슈트 핸드를 GTO보다 많이 폴드하므로, 스몰블라인드 입장에서는 림프와 오픈 모두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몰블라인드가 림프했을 때, GTO에선 빅블라인드가 강한 핸드뿐만 아니라 약한 수딧 핸드, 오프슈트 핸드까지 아이솔레이즈로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넓게 공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스몰블라인드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림프 전략을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vs 블라인드는 1:1 구도이므로 상대 성향에 따라 전략 변화가 매우 큼니다. 예를 들어 UTG 오픈 레인지는 필드 경향과 무관하게 비교적 정적인 반면, 버튼/스몰블라인드/빅블라인드 레인지는 상대방 경향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빅블라인드의 반응을 관찰해가며 림프-오픈 빈도, 오픈 사이즈 등을 조정하는 게 수익적입니다.

정리하면,

- 스몰블라인드에서는 대부분의 핸드로 림프가 기본
- 스택이 깊을수록 림프, 스택이 줄수록 레이즈 빈도 및 사이즈 조절
- 빅블라인드의 폴드/콜/아이솔레이즈 경향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바꿀 것
- 실전 필드에서는 오픈과 림프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이 원칙만 지키면 블라인드 vs 블라인드 상황에서도 훨씬 수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50만 상황, 히어로는 스몰블라인드에서 A4 오프슈트를 받았습니다. 스택은 60BB이고, 이럴 때 0.5BB로 림프할지, 아니면 레이즈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2BB, 2.5BB로 레이즈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만, 이는 엄연한 실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액션은 0.5BB로 림프하는 것이며, 실제 GTO 차트에서도 A4 오프슈트는 거의 항상 림프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사실 대부분의 핸드가 스몰블라인드에서는 림프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스몰블라인드에서 림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빅블라인드와 OOP(포지션이 불리한 상황)에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 자주 레이즈하면 빅블라인드는 넓은 핸드로 콜할 수 있고, 인포지션에서 쉽게 아웃플레이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렴하게 자주 플랍을 보며 이퀴티를 실현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빅블라인드가 림프에 대해 3.5BB로 레이즈(아이솔레이즈) 한다면, A4 오프슈트 같은 핸드는 림프-콜 라인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스몰블라인드에서 직접 레이즈했다가 3벳을 맞으면 콜하기 어려워지므로, 림프-콜로 플랍을 더 자주 보고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스몰블라인드 림프 전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림프 후 빅블라인드의 레이즈에 대해 콜(림프-콜)
- 혹은 폴드(림프-폴드)
- 그리고 강한 핸드는 림프-리레이즈까지도 섞음

이렇게 하면 빅블라인드에게 익스플로잇당하기 어려운, 균형 잡힌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택이 깊을수록(예: 100BB) 스몰블라인드의 레이즈 빈도는 10% 미만이고, 거의 모든 핸드가 림프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스택이 줄어들수록 오픈 레이즈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사이즈도 3.5BB→3BB→2.5BB 등으로 조금씩 작아집니다. 30BB 이하에서는 오픈젼(올인) 레인지가 일부 등장하며, 8BB 이하에서는 거의 올인 혹은 폴드 전략만 남습니다.

레이즈 사이즈의 원칙은 OOP(스몰블라인드)에서는 딥스택일수록 더 큰 사이즈(4BB), 스택이 줄수록 더 작은 사이즈(2~3BB)로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지션 불리함을 보완하고, 낮은 빈도의 오픈을 커버하기 위한 GTO 식 접근입니다.

실전에서는 빅블라인드가 스몰블라인드 오픈에 오버폴드를 한다면, 오픈 빈도를 늘리고 사이즈는 3.5BB 또는 3BB로 조절해도 됩니다. 반대로 빅블라인드가 너무 넓게 콜한다면 림프 전략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필드에서 빅블라인드는 약한 수딧 핸드나 오프슈트 핸드를 GTO보다 많이 폴드하므로, 스몰블라인드 입장에서는 림프와 오픈 모두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몰블라인드가 림프했을 때, GTO에선 빅블라인드가 강한 핸드뿐만 아니라 약한 수딧 핸드, 오프슈트 핸드까지 아이솔레이즈로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넓게 공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스몰블라인드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림프 전략을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vs 블라인드는 1:1 구도이므로 상대 성향에 따라 전략 변화가 매우 큼니다. 예를 들어 UTG 오픈 레인지는 필드 경향과 무관하게 비교적 정적인 반면, 버튼/스몰블라인드/빅블라인드 레인지는 상대방 경향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빅블라인드의 반응을 관찰해가며 림프-오픈 빈도, 오픈 사이즈 등을 조정하는 게 수익적입니다.

정리하면,

- 스몰블라인드에서는 대부분의 핸드로 림프가 기본
- 스택이 깊을수록 림프, 스택이 줄수록 레이즈 빈도 및 사이즈 조절
- 빅블라인드의 폴드/콜/아이솔레이즈 경향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바꿀 것
- 실전 필드에서는 오픈과 림프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이 원칙만 지키면 블라인드 vs 블라인드 상황에서도 훨씬 수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3벳 스쿼즈 - 앞에서 오픈이 나오고 콜집이 있을때

앞에서 오픈이 나오고 빅블라인드에서 88 같은 파켓페어를 받았는데, 뒤에 콜러가 2명이나 있다면 어떻게 플레이 해야 할까요? 애매하게 스쿼즈했다가 플랍이 불리하게 떨어지고, 상대가 죽지 않아 결국 칩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홀덤에서 한 명 상대보다 여러 명을 상대하는 멀티웨이 상황이 훨씬 어렵고, 실제 MTT 필드에서는 거의 모든 팟에 콜러가 한 명 이상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콜러)을 효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서 오픈이 나오고, 중간에 콜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스쿼즈'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40BB 상황에서 GTO 위자드는 이럴 땐 애매하게 스쿼즈하지 말고 차라리 올인(셔브)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반면, 100BB처럼 딥스택에서는 대부분 콜로 방어합니다. 이렇게 스택에 따라 스쿼즈 레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스쿼즈와 디폴라라이제이션

- 폴라라이즈란 매우 강한 핸드와 약한 핸드를 섞어 3벳 레인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 디폴라라이즈는 강한 핸드만 레인지에 남기는 걸 의미합니다.

스쿼즈 상황에서는 콜러가 끼어 있기 때문에 폴라라이즈가 아니라 디폴라라이즈, 즉 최상급 핸드 위주로만 스쿼즈 해야 합니다.

플랫과 스쿼즈 레인지의 변화

- 예를 들어 UTG 오픈에 버튼에서 3벳(스쿼즈) 레인지는 약 5.8% 정도이며, 그 외 많은 핸드는 플랫(콜)로 대응합니다.
- 하지만 중간에 컷오프가 콜하면, 스쿼즈하는 레인지가 훨씬 더 타이트해집니다.
- 이런 상황에서 AQs, QQ, JJ, AK 등 프리미엄 핸드는 100% 스쿼즈에 포함되고, 마지널한 핸드(텐잭수딧, 약한 수딧 커넥터 등)는 플랫이나 폴드로 빠집니다.
- 즉, 플랫 레인지는 줄고, 스쿼즈 레인지는 더 강하게, 더 좁게 변합니다.

스쿼즈 사이즈 가이드

스쿼즈를 할 때 중요한 건 충분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사이즈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택, 포지션, 그리고 콜러 숫자에 따라 적절한 스쿼즈 사이즈가 다릅니다.

스택별 스쿼즈 사이즈 예시

- 100BB 기준
 - IP(인포지션, 예: 버튼): 4X
 - OOP(아웃오브포지션, 예: 빅블라인드): 5~5.5X
 - 오픈+콜러 2명 이상이면 최대 5.5X까지
- 60BB 기준
 - IP: 4X, OOP: 5X
- 40BB 기준
 - IP: 3.54X, OOP: 4.55X
- 30BB 이하
 - 스택이 얇을수록 스쿼즈 사이즈도 작아지고, 20BB 이하에선 3벳 올인(셔브)이 일반적

※ 예시: UTG 오픈 2BB, 컷오프 콜 2BB, 데드머니 2.5BB, 스쿼즈 성공 시 한 번에 6.5BB를 가져오는 셈입니다.

실전 팁 및 주의점

- 스쿼즈는 디폴라라이즈된 강한 핸드(프리미엄, 플레이어빌리티 좋은 핸드) 위주로만 한다.
- 스택이 얇아질수록 스쿼즈 사이즈와 레인지도 타이트하게 변해야 한다.
- 사람들이 큰 스쿼즈에도 잘 콜한다면 밸류핸드 위주로 크게, 마지널 핸드로는 무리하지 않는다.
- ICM 프레스가 큰 상황(버블, 파이널 테이블 등)에서는 작은 스쿼즈에도 폴드가 많아지니, 굳이 큰 사이즈로 밀 필요는 없음.
- 스쿼즈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여러 명이 폴랍을 같이 보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충분한 압박감을 줄 것.

정리

스쿼즈는 멀티웨이 팟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폴랍 무기 중 하나입니다.

딱 하루에 한두 번만 제대로 성공해도 큰 칩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강한 핸드로만 과감하게, 사이즈는 충분히 크게!

적절한 스팟을 잘 찾아 스쿼즈 플레이를 활용하면 파이널 테이블, 우승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빅 방어

사실 프리플랍에서 빅블라인드 방어(빅방어)는 1BB만 더 내면 플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쉽지만, 실제로는 플랍 이후에 어떻게 플레이할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플랍에서 어떤 핸드로 방어할지, 즉 빅방어 레인지를 명확히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1BB만 더 내면 된다는 이유로 빅방어를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빅방어 레인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빅방어 레인지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

1. 오픈 포지션

어디서 오픈이 나왔는지가 첫 번째 고려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언더더건(UTG)에서 오픈이 나오면 레인지가 타이트하고, 버튼이나 컷오프에서 오픈이 나오면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 UTG 오픈에는 약 55%의 핸드로 방어, 바텀 레인지(예: K7오프, Q8오프 등)는 폴드가 맞습니다.
- 플랫 레인지에는 EV(기대값)가 거의 0이거나 소폭 마이너스인 핸드들이 많으므로 굳이 억지로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오픈 사이즈

상대방의 오픈 사이즈에 따라 방어 레인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 오픈 사이즈가 작을수록(2BB 등) 방어 비율을 더 넓힐 수 있고, 클수록(3BB 이상) 더 타이트하게 방어하며, 3벳(3bet) 빈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버튼에서 2BB로 오픈하면 80%까지 방어하고, 그 중 15~20%는 3벳으로, 나머지는 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오픈이 3BB 이상으로 커지면 전체 방어 레인지는 50% 정도로 줄이고, 3벳 비율이 높아집니다.

3. 해즈업 vs 멀티웨이(콜집의 유무)

오픈과 나 사이에 콜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방어 레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해즈업(헤드업)에서는 수딧 핸드 등 꽤 넓은 레인지로 방어하지만,
- 멀티웨이(여러 명이 팟에 들어온 경우)에서는 오히려 방어 레인지가 훨씬 타이트해집니다.
- 멀티웨이에서는 주로 임플라이드 오즈가 좋은 핸드(낮은 파켓, 수딧 커넥터, 수딧 에이스 등) 위주로 콜하고, 중간 파워의 브로드웨이 옴슈트 핸드(KJ오프, QT오프 등)는 과감히 폴드해야 합니다.

4. 스택 사이즈(유효 스택)

스택이 깊을수록(딥스택) 방어 레인지가 타이트해지고, 스택이 얇아질수록(쇼트스택) 방어를 더 넓혀야 합니다.

- 100BB일 때는 브로드웨이 옴슈트 핸드도 일부 폴드하지만,
- 30BB 이하로 내려가면 방어 레인지는 75%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 20BB 이하로 떨어지면 3벳보다는 3벳 올인(셔브)으로 대응하는 핸드가 늘어나고, 상대의 오버폴드를 활용해 JT, 낮은 파켓 등으로도 과감하게 올인할 수 있습니다.

3벳(3bet) 레인지 구성

- 언더더건 오픈에 대한 3벳은 비중이 크지 않으며, 프리미엄 핸드(AA, KK, AKs 등)가 중심입니다.
- AK오프, QQ, JJ 같은 핸드들도 의외로 플랫(콜)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강한 핸드도 플랫 레인지에 포함시켜 레인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3벳 블러프로는 A5s, 수딧 커넥터(98s, 87s 등)를 적절히 섞어줘야 합니다. 이런 핸드들은 포스트플랍 플레이빌리티가 좋고, 상대의 폴드를 유도할 확률도 높습니다.

버튼 오픈에 대해서는 3벳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버튼이 워낙 넓게 오픈하므로, 3벳 레인지도 넓게 가져가며, 수딧 커넥터와 에이스수딧 휠(A5s~A2s) 등도 강하게 3벳으로 밀어붙입니다.

멀티웨이 팟의 방어

- 해즈업일 때는 수딧 브로드웨이, 파켓 등으로 넓게 방어할 수 있지만,
 - 멀티웨이에서는 오히려 타이트하게, 임플라이드 오즈가 좋은 핸드 위주(낮은 파켓, 수딧 커넥터, 수딧 개퍼, 수딧 에이스 등)로만 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스택이 얇아질수록(쇼트스택) 전략

- 스택이 적어질수록 3벳 올인(셔브)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 버튼 오픈에 대해선 JTs, 66 같은 핸드들도 올인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대가 콜하기 힘든 넓은 오픈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정리

1. 오픈 포지션: EP(언더더건)에서는 콜 레인지가 넓고 3벳은 적다. LP(버튼, 컷오프)는 더 공격적으로 3벳.
 2. 오픈 사이즈: 오픈이 클수록 타이트하게, 작은 오픈엔 넓게 방어.
 3. 멀티웨이 여부: 멀티웨이에서는 임플라이드 오즈 좋은 핸드로만 콜, 해즈업은 더 넓게.
 4. 스택 사이즈: 쇼트스택일수록 방어 레인지 넓히고, 3벳 셔브(올인) 비율도 높임.
-

실제로 빅블라인드에서는 수익적으로 플레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지만, 위 4가지 요소를 고려해 빅방어 레인지를 잘 구축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체 토너먼트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포지션, 오픈 사이즈, 멀티웨이, 유효 스택 이 네 가지 원칙만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스몰/빅 싸움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블라인드 vs 블라인드(BvB) 상황에 대한 전략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바른 전략을 알면 매우 수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몰블라인드(SB)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게임에서도 자주 나오는 스팟임에도 복기를 잘 하지 않곤 하죠.

이번에는 블라인드 vs 블라인드 전략을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 각각의 시점에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스몰블라인드(SB) 전략

언더더건부터 버튼까지 모두 폴드하고 SB 차례가 되면, 보통 이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GTO 기준 100BB 상황에서 SB 레인지는 의외로 상당히 넓습니다. 폴드 빈도는 약 12%뿐이며, 대부분의 핸드로 림프(콜)하는 게 표준입니다. 완전한 쓰레기 핸드(예: 29오프, 27오프, 52오프 등)만 폴드하고, 나머지 핸드들은 거의 다 림프할 수 있습니다.

SB에서 림프가 좋은 이유는,

- OOP(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덱스택 플레이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프리미엄 핸드도 림프에 섞어야 레인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B에서 림프 전략의 핵심 고려 요소는 스택 사이즈와 빅블라인드(BB) 성향입니다.

- **100BB 덱스택:** 거의 모든 핸드 림프, 프리미엄도 림프에 섞음
- **50BB 이하:** 림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레이즈 빈도가 생김. 브로드웨이, 탑페어 가치가 올라가면서, 3.5BB로 오픈레이즈하는 핸드가 늘어납니다.
- **25BB 이하:** 오픈 사이즈는 3BB, 17BB 이하에선 2.5BB까지 줄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상대 BB가 아이솔레이션(즉, SB 림프에 공격적으로 레이즈) 빈도가 낮으면, SB는 오히려 프리미엄 핸드를 레이즈로 돌려야 합니다. 반대로, BB가 공격적이라면 더 넓게 림프하는 것이 유리하죠.

2. SB 림프 후 BB의 아이솔레이션(iso) 대응

SB가 림프를 했을 때 BB는 약 40%의 핸드로 아이솔레이션 레이즈, 나머지는 체크합니다.

- BB가 3.5BB로 아이솔을 하면, SB는 쓰레기 핸드는 폴드, 대부분의 수딧 핸드는 콜, 프리미엄 핸드(AK, 퀸즈, 잭스 등)는 림프-레이즈(약 11BB, 즉 3배)를 합니다.
- 이때 SB의 림프-레이즈 레인지가 있어야 레인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BB가 SB 오픈에 50% 이상 폴드를 한다면, SB는 애니핸드로 3BB 오픈만 해도 바로 수익이 납니다. 0.5BB 만 더 투자하면 2.5BB의 데드머니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빅블라인드(BB) 전략

SB가 림프했을 때,

- 프리미엄 핸드(AK, AQ, AJ 등)는 당연히 아이솔레이션 레이즈
- 일부 완전한 쓰레기 핸드들도 블러프 아이솔로 레이즈
- 중간 정도의 플레이어블 핸드(퀸잭오프, 킹텐오프 등)는 체크백(플랍을 인포지션으로 보겠다는 의미)

아이솔레이션 사이즈는 보통 3.5~4BB 정도가 표준입니다.

4. BvB 상황에서의 익스플로잇 팁

- 대부분은 SB에서 지나치게 오픈 레이즈를 많이 하거나, BB에서 아이솔레이션 레이즈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대가 이런 경향이 보이면 SB에선 더 자주 레이즈, BB에선 더 적극적으로 아이솔을 시도하는 식으로 전략을 조정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

블라인드 vs 블라인드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 SB에선 기본적으로 넓게 림프, 스택이 줄수록 레이즈 빈도를 늘림
- BB는 프리미엄+쓰레기 핸드 일부로 아이솔, 나머지는 체크
- SB가 림프-레이즈 레인지를 꼭 가져가고, BB는 다양한 아이솔레이션 사이즈 활용
- 상대 성향에 맞춰 유연하게 오픈/림프/아이솔 빈도를 조절할 것

이렇게 운영하면 BvB 구간에서 실전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몇 bb 로 오픈해야 하나요?

오픈 레이즈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할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2BB, 2.5BB, 3BB 등 각자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오픈 사이즈를 정합니다. 가끔은 4BB, 5BB까지 오픈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2BB에서 2.5BB로 바뀐다고 해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택 사이즈에 따라 오픈 레이즈 크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스택이 적어질수록 오픈 사이즈도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BB 정도 딥스택이면, 보통 2.3BB 정도로 오픈하는 게 표준에 가깝습니다. 물론 2.2BB나 2.4BB, 또는 2.5BB로 오픈해도 괜찮고, 포지션이 앞이나 뒤냐에 따라, 특히 컷오프나 버튼에선 오픈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레이트 포지션(컷오프, 버튼)에서 오픈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버튼에서는 3베트를 맞을 확률이 더 낮고, 항상 인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 포지션은 정보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오픈하더라도 수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컷오프나 버튼에서 오픈 사이즈를 조금씩 더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100BB~40BB까지는 약 2.3BB 오픈
- 40BB~30BB 구간에선 2.2BB
- 30BB 이하로 떨어지면 2.1BB
- 20BB 근처까지 내려가면 2BB 오픈

이렇게 스택이 얇아질수록 오픈 레이즈 사이즈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1. 스택이 적을수록 오픈 사이즈가 찢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2. 0.5BB 차이도 플랍, 턴, 리버를 거치며 최종 찢 사이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오픈을 너무 크게 하면, SPR(스택투팟레시오)이 낮아져서 플랍 이후 곧바로 올인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4. 특히 토너먼트는 스택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픈 사이즈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실전 예시

100BB 들고 2.3BB 오픈 → 무난

40BB 들고 2.2BB 오픈 → 무난

30BB 이하면 2.1BB

20BB라면 2BB 오픈

이렇게 스택이 줄수록 오픈 크기도 같이 줄여주는 게 MTT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만약 20BB로 2.5BB나 3BB 오픈을 하게 되면 찢이 너무 커져서 플랍에서 올인 싸움이 불가피해지고, 선택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스택 보존과 찢 컨트롤을 위해, 스택이 적을수록 오픈은 작게, 스택이 많을수록 살짝 더 키우는 게 유리합니다.

오픈했는데 뒤에서 3벳 나왔을때

오픈 레이즈를 했는데 뒤에서 3벳이 나올 때,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언더더건에서 에이스 퀸 오프슈트로 오픈했는데 플러스원에서 3벳이 들어오면, 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죠. 이런 상황은 MTT에서 누구나 반복해서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벳 대응 전략의 핵심은 **포지션**, **핸드 셀렉션**, **스택 사이즈**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플랍 이후에 인 포지션(IP)에서 플레이하는지, 아웃 오브 포지션(OOP)에서 플레이하는지에 따라 EV 차이가 큼니다. IP는 항상 정보를 늦게 받으니 밸류 베팅이나 블러프가 유리하고, OOP는 액션을 먼저 해야 해서 훨씬 어렵죠.

둘째, 3벳 팟에서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인가를 봐야 합니다. 도미네이트될 확률이 높은 핸드(예: KQo, AJo 등)는 특히 OOP일 때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수딧 핸드나 커넥터, 파켓페어 등은 플랍에서 셋, 스트레이트 등으로 큰 밸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플랫 콜에 적합합니다.

셋째, 남은 스택에 따라 SPR이 달라지고, SPR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딥스택에서는 IP의 이점이 극대화되고, SPR이 낮아질수록(즉, 스택이 얇을수록) 포지션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포커의 3대 축, 즉 **포지션**, **어그레션**, **셀렉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지션은 상대방보다 늦게 액션할 수 있는지의 문제고, 어그레션은 레이즈/리레이즈로 압박을 주는 전략, 셀렉션은 결국 좋은 핸드만으로 플레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포지션에는 상대적 포지션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컷오프에서 오픈해도 버튼이 3벳하면 컷오프가 OOP가 되는 것처럼, 액션 순서가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100BB 상황에서 언더더건이 오픈(2.3BB), 플러스원이 8BB로 3벳 했을 때 언더더건은 어떤 핸드로 콜하고 폴드해야 할까요?

낮은 키커의 오프슈트 브로드웨이(AQo, KQo, KJo 등)는 폴드하는 것이 맞습니다. 킹퀸옴, 에이스퀸옴, 에이스잭옴, 킹잭옴 등도 폴드에 가깝고, Q9s, J9s, K9s 같은 낮은 수딧 브로드웨이, A9s 이하의 수딧 에이스들도 대부분 폴드입니다.

반면, QTs, JTs, KQs, KJs, AJs 등 키커가 높은 수딧 브로드웨이는 콜하는 경우가 많고, 프리미엄 핸드(AA, KK, AKs)는 4벳으로 리레이즈합니다.

파켓페어나 수딧 커넥터는 콜 비중이 높습니다. 딥스택에서는 이런 핸드로 셋이나 스트레이트를 맞췄을 때 매우 큰 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A5s, A4s 등은 플랍 이후에도 플레이가 쉽기 때문에 콜에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벳 대응에서 약 40%는 폴드, 43%는 콜, 13%는 4벳, 그리고 극소수(약 4.5%)는 100BB 올인(셔브)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AK와 KK 같은 극강의 프리미엄 핸드를 일부 100BB 셔브로 넣는 건 GTO 관점에서는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드물게 보입니다.

포지션별 대응을 보면, 뒤 포지션(버튼)에서 3벳이 나올수록 플랫 콜 비중이 커지고, 앞 포지션(플러스1) 3벳엔 타이트하게 대응합니다.

스몰블라인드나 빅블라인드에서 3벳이 나올 경우, 4벳 빈도가 뚜렷하게 줄고, 매우 넓은 레인지로 플랫 콜을 하게 됩니다. 특히 IP일 때(즉, 내가 인포지션에 있을 때)는 프리미엄 핸드마저 트랩 목적으로 플랫 콜하는 경우도 많아지죠.

반면, OOP에서 3벳 플랫 레인지는 주로 수딧 핸드가 많습니다. OOP에서 낮은 파켓이나 도미네이트 위험이 큰 옴슈트 브로드웨이로 콜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도미네이트 위험이 적고 인플라이드 오즈가 좋은 미들 파켓, 수딧 커넥터, 수딧 에이스 등은 콜에 포함됩니다.

스택이 얇아질수록(예: 40BB, 30BB, 20BB) 파켓페어나 수딧 커넥터 등 낮은 임플라이드 오즈 핸드들은 레인지에서 제외되고, 4벳 대신 3벳 올인(셔브) 대응이 많아집니다. 30BB 이하로 가면, 더 이상 플랫 콜이나 4벳은 거의 사라지고 3벳 올인 위주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 IP에서는 플랫 콜 비중이 올라가고, OOP에서는 4벳 비중이 높아진다
- 딥스택일수록 파켓페어, 수딧 커넥터의 플랫 콜이 많아지고, 스택이 낮아질수록 3벳 올인 레인지가 많아진다

- 브로드웨이 오프슈트, 도미네이트 위험이 높은 핸드는 되도록 피하고, 임플라이드 오즈가 높은 핸드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적
- 상대의 3베트 레인지가 타이트하거나 밸류에 치중되어 있다면, 애매한 핸드로 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3베트를 충분히 하지 않고, 콜드콜을 해선 안 되는 자리에서 콜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점을 잘 익스플로잇하면 MTT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레인지에 3베트를 맞았을 때, 포지션, 핸드, 스택 사이즈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MTT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V에 관하여

프리플랍 레인지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특정 핸드만 오픈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더더건에서 44(사파켓)를 폴드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플랍에 4가 뜰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실제로 프리플랍 레인지는 아무나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엄연한 수학적 계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포커에서는 EV, 즉 기대값(Expected Valu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핸드마다 EV가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은 해당 핸드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빅블라인드(BB) 수익을 의미합니다. 표로 보면 수익적인 핸드는 초록색, 수익적이지 않은 핸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폴드를 선택했을 때의 EV는 항상 0입니다. 반면, 어떤 핸드로 오픈했을 때 EV가 마이너스라면 그 핸드는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AA(에어라인)의 EV는 12.06BB로 아주 높고, AK오프슈트는 1.19BB, KK는 6.55BB, QQ는 3.31BB입니다. JJ는 1.83BB, TT는 1.15BB, 99는 0.67BB로 내려가고, 이처럼 상위 파켓과 브로드웨이 핸드들이 높은 수익을 보입니다. 포커를 처음 배울 때 타이트하게 레인지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핸드들이 어떻게 플레이해도 대체로 수익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계선에 있는 핸드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A9s, A8s, A7s 등은 오픈했을 때 소폭 플러스 EV를 기록합니다. T9s, 55 등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44 이하로 내려가면 EV가 0에 가까워지고, 그 이하는 수익적으로 플레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리플랍 레인지는 장기적으로 EV가 플러스인 핸드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GTO(Game Theory Optimal)에서 제안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즉, 이 레인지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익적이지 않은 핸드를 배제하고 수학적 근거에 따라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택사이즈의 중요성

[스택사이즈의 중요성]

여러분은 포커 게임에서 전략의 뿌리가 되는 프리플랍 레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MTT, 즉 멀티 테이블 토너먼트의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너먼트 전략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스택 사이즈에 맞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캐시 게임과 달리 토너먼트는 블라인드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 스택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250BB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100BB, 50BB, 30BB, 20BB로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20BB밖에 안 남았는데도 200BB인 것처럼 플레이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즉, 토너먼트에서는 스택 사이즈에 민감하게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블라인드 단계별로 어떻게 전략을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토너먼트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너먼트가 시작해서 레지스트레이션 마감 전까지, 흔히 얼리 블라인드 또는 레이트 레지 구간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단계는 마감 직전까지의 필드로, 이때는 림프가 많고 멀티웨이 팟도 자주 나와 필드가 소프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타이트하게 플레이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지 마감 이후 인더머니(ITM, In The Money)까지의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리엔트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스택을 보존하려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즉, 올인을 당하면 끝이기 때문에 생존이 중요해지고, '스택 프레저베이션'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레지 마감 전까지는 '안 되면 다시 바인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플레이하지만, 레지 마감 후에는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ITM 진입 후 파이널 테이블까지의 구간입니다. 인더머니 직후에는 쇼트스택들이 생존을 위해 버티다가 버블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탈락하는 일이 많고, 이때 칩리더들은 더욱 압박을 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칩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칩을 얻고, 쇼트스택은 더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구간에서는 칩리더가 ICM 프레셔를 활용해 쇼트스택을 더욱 압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버블 팩터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인더머니 직전, 즉 버블 구간에서는 모두가 머니인에 가까워질수록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플레이가 더 타이트해집니다. 버블이 끝나면 그 긴장감이 풀려 공격적인 플레이가 다시 늘어납니다. 파이널 테이블 직전, 마지막 구간에서는 버블 팩터가 다시 한 번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플레이어 심리와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익스플로잇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블 구간에서는 상대의 오버폴드 경향을 이용해 블러프 빈도를 높이고, ITM 직후에는 밸류 위주로 칩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스택 사이즈에 따른 레인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토너먼트 초반, 즉 딥스택 구간에서는 SPR(Stack to Pot Ratio, 팟 대비 스택 비율)이 높아 리버까지 승부가 자주 열립니다. 이때는 파켓, 수딧 에이스, 수딧 커넥터 같은 핸드들의 밸류가 높아집니다. 셋을 맞추거나 플러시 스트레이트를 만들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쇼트스택 구간에서는 플랍이나 프리플랍에서 셔브(올인)가 많아지고, 파켓이나 수딧 커넥터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20~30BB 정도 남았을 때는 미들, 로우 파켓이나 수딧 커넥터의 플레이 빈도를 줄이고, 에이스잭 이상, 킹퀸 같은 빅 카드 중심의 레인지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BB 이하의 초쇼트 스택에서는 프리플랍 올인(셔브)이나 상대 오픈에 3벳 셔브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이런 셔브 상황에서 탈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만 기다리다 보면 블라인드에 스택을 잃고 '녹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너먼트는 스택 사이즈에 따라 레인지를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하고, 각 단계마다 실시간으로 전략을 맞추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타이트하게 칩을 쌓고, 중반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셔브와 플립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승부처마다 두려움에 주저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최적의 레인지를 실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 단계와 스택별로 전략을 세우고, 상대 심리와 테이블 상황을 익스플로잇하면, 여러분도 안정적으로 파이널 테이블과 우승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포지션별 오픈레인지

자, 이제 포지션별로 100BB 기준 프리플랍 오픈 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핸드로 오픈 레이즈를 해야 할까요? 이 차트는 설명란에도 첨부해둘 테니 참고하세요.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뒤로 갈수록 오픈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언더더건(UTG)에서는 ATo, KJo, QJo, 22, 33, A2s, A3s 같은 핸드는 폴드해도 괜찮습니다. 언더더건과 언더더건+1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포지션이 뒤로 갈수록 레인지가 조금씩 넓어지죠. 예를 들어 로우잭에서는 A2s, A3s 같은 핸드를 조금씩 오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우잭의 오픈 레인지가 21.8%라면, 하이잭에서는 28%로 약 6% 늘어납니다. 컷오프에서는 28%에서 36%로, 버튼에서는 무려 55%까지 넓어집니다. 버튼에서는 거의 두 번 중 한 번은 오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인게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넓게 오픈해도 괜찮아요.

이 프리플랍 레인지를 쉽게 기억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라인더스 공식이라고 불리는데, 뒤에 남은 플레이어 수에 따라 내 오픈 레인지의 키커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버튼에서는 스몰블라인드, 빅블라인드 두 명이 남아 있으니, 여기에 3을 더해서 5가 됩니다. 그래서 OX 수딧(A5s, K5s 등)까지 오픈합니다. 브로드웨이 수딧 핸드들은 더 낮은 키커도 오픈할 수 있고, 파켓은 당연히 오픈이죠. 오프suit(offsuit) 핸드는 남은 플레이어 수에 6을 더하세요. 즉, 버튼에서는 $2+6=8$ 이므로 8X 오프(오프)까지 오픈합니다.

핸드 기억법을 정리하자면, 수딧은 남은 인원수+3, 오프는 남은 인원수+6입니다. 버튼에서는 OX 수딧, 8X 오프, 컷오프에서는 6X 수딧, 9X 오프, 하이잭에서는 7X 수딧, 10X 오프, 로우잭에서는 8X 수딧, JX 오프, UTG+1에서는 9X 수딧, QX 오프까지 오픈하는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에 따라 테이블에서 뒤에 몇 명 남았는지 보고, 그 숫자에 3을 더해 수딧 레인지, 6을 더해 오프 레인지를 정하면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매트 프랙이라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프리플랍 오픈 레인지를 쉽게 시각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3, 플러스 6 공식으로 변형해서 쓰면 아주 편합니다.

포지션이 앞으로 갈수록(UTG 쪽으로 갈수록) 레인지가 점점 더 타이트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UTG+1에서는 9X 수딧, QX 오프 정도가 기준이 되고, 블라인드가 깊을 때 오프 브로드웨이 핸드들의 밸류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택이 얇아질수록 이런 핸드들의 오픈 빈도가 더 늘어납니다. 100BB일 때는 KTo, A9o, QJo 등은 오픈하지 않지만, 스택이 짧아질수록 오픈할 수 있는 핸드가 많아지죠.

한편, 프리플랍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서 로우잭에서 T2s 같은 핸드를 오픈하는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T2s를 로우잭에서 오픈하면 EV가 -0.3BB 수준인데, 이런 마이너스 EV 핸드를 자주 플레이하면 결국 롱런에서 파산할 수 있습니다. 각 핸드별 수익을 100핸드 기준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32BB라면 100번 플레이하면 32BB를 잃는 셈이죠.

요약하면, 프리플랍 레인지는 포지션별로 타이트하게 가져가되, 버튼에 가까워질수록 넓게 오픈해도 되고, 공식(수딧은 남은 인원+3, 오프는 남은 인원+6)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인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약간 조정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거나 루즈하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하면 좋겠습니다.